

III 2015년 주요 사건사고 일지 III

■ 삼성그룹 사업·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요 일지

◇ 2013년

- 7.31 = 삼성물산,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 시작
- 9.23 = 삼성에버랜드,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 결정
- 9.27 = 삼성SDS, 삼성SNS 흡수합병 결정
- 11.4 = 에스원, 삼성에버랜드 건물관리사업 인수 결정
= 삼성에버랜드, 급식 및 식자재 사업 분리해 삼성웰스토리 설립
- 12.31 = 삼성물산, 삼성엔지니어링 2대 주주(지분율 7.81%) 차지

◇ 2014년

- 3.31 = 삼성SD-제일모직 합병 발표
- 4.2 = 삼성종합화학-삼성석유화학 합병 발표
- 5.8 = 삼성SDS,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화
- 6.3 = 삼성에버랜드, 2015년 1분기 중 상장 발표
- 7.4 = 삼성에버랜드,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
- 9.1 = 삼성중공업-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발표
- 10.27 = 삼성중공업·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주주총회 승인
- 11.14 = 삼성SDS, 유가증권시장 상장
- 11.19 = 삼성중공업-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
- 11.26 = 삼성테크윈·삼성탈레스·삼성종합화학·삼성토탈,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
- 12.18 = 제일모직, 유가증권시장 상장

◇ 2015년

- 4.30 = 삼성종합화학·삼성토탈, 한화종합화학·한화토탈로 재출범
- 5.15 =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삼성생명 공익재단·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선임
- 5.26 = 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 결의
- 7.17 = 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 주총 승인

■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주요 일지

- 1999. 1 = 한일은행·상업은행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
- 2001. 3 = 우리금융지주 설립, 한빛·평화·광주·경남은행, 하나로증권 편입
- 2001.12 = 한빛·평화은행 분할 합병
- 2002. 5 = 한빛은행, 우리은행으로 사명 변경
- 2002. 6 = 우리금융, 증시 상장으로 정부 지분 11.8% 매각
- 2003. 7 = 우리은행, 우리증권(옛 하나로증권) 합병
- 2004. 9 = 예금보험공사, 1차 지분대량매각(블록세일)으로 우리금융 지분 5.74% 매각, 예보 보유지분율 85.90%→80.16%

- 2005. 3 = 우리증권·엘지투자증권 합병
- 2007. 6 = 예보, 2차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지분 5% 매각
- 2007.11 =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 매각 시한 삭제
- 2009. 8 = 정부 조직개편으로 2008년 폐지됐던 공자위 재출범
- 2009.11 = 예보, 3차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지분 7% 매각
- 2010. 4 = 예보, 4차 블록세일로 지분 9% 매각, 이후 예보 지분율 56.97% 유지
- 2010.10.29 =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우리금융 매각 공고, 병행매각 방식
- 2010.11.26 = 우리금융 예비입찰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(11곳 신청)
- 2010.12.13 = 우리금융 컨소시엄 입찰 참여 포기 선언
- 2010.12.17 = 공자위,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
- 2011. 5.17 = 공자위, 우리금융 민영화작업 재개 발표
- 2011. 5.18 = 우리금융 매각 공고(일괄매각)
- 2011. 6.14 = 정부,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입찰 배제
- 2011. 6.29 = 우리금융 예비입찰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(3곳 신청)
- 2011. 8.17 = 우리금융 예비입찰 마감, 유효경쟁 미달(1곳 신청)
- 2011. 8.19 = 공자위,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
- 2012. 4.27 = 공자위,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방안 확정
- 2012. 4.30 = 우리금융 매각 공고(일괄매각)
- 2012. 7.25 = KB금융지주, 우리금융 인수전 불참 결정
- 2012. 7.27 = 우리금융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, 유효경쟁 미달(신청자 없음)
- 2013. 6.26 = 공자위,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방안 발표 (분리매각)
- 2013.12.24 = 우리투자증권 패키지(우투증권·생명보험·저축은행·자산운용)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농협 선정
- 2014. 4.11 = 우투증권 패키지 농협에 매각 완료
- 2014. 6.23 = 공자위, 우리은행 경영권지분(30%) 및 소수지분(26.97%)으로 분할 매각 발표
- 2014. 9.30 = 입찰공고
- 2014.11.28 = 입찰마감, 중국 인방보험 단독 입찰에 따른 유효경쟁 미달로 경영권 매각 무산, 소수지분 매각은 성공
- 2015. 7.13 = 예보, 공자위 간담회서 시장 수요점검 결과 보고
- 2015. 7.21 = 공자위, 과점주주 매각 방식 포함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

■ 세월호 참사 주요 일지

- 2014.4.15 = 오후 9시, 세월호 인천항 출발
- 2014.4.16 = 오전 8시52분, 단원고 2학년 최덕희(사망)군

-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첫 신고, “배가 기울고 있어요”
- 2014.4.17 =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0시 현재 사망자 6명 발표.
= 오후 4시20분, 박근혜 대통령, 진도체육관 방문.
- 2014.4.18 = 오전 11시50분, 선수 부분까지 물에 잠겨 완전 침몰.
= 오후 3시38분, 민관군 합동구조팀 선체 첫 진입.
- 2014.4.19 = 오전 2시,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.
- 2014.5.15 =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승무원 15명 기소.
- 2014.5.19 = 대통령 담화에서 ‘해양경찰청 해체’ 발표.
- 2014.7.18 = 24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1명 수습. 실종자 10명.
- 2014.7.21 = 순천 매실밭 번사체 40일 만에 유병언으로 확인
- 2014.7.22 = 경찰, 유병언 사망 확인 발표.
- 2014.7.25 = 유병언 장남 유대균, 조력자 박수경 검거
- 2014.10.28 = 102일 만에 세월호서 여성 실종자 1명 수습. 실종자 9명.
- 2014.11.11 = 정부,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. 실종자 9명.
- 2014.11.18 =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.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공식 해체.
- 2014.11.19 = 세월호 3법 공포. 국민안전처 출범.
- 2015.1.12 = 4.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.
- 2015.3.5 =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장 수여.
- 2015.4.1 = 해수부, 세월호 피해자 배·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착수 발표.
- 2015.4.8 = 해수부, 세월호 인양·보상 등 전체 비용 5천 548억원 추정 발표
- 2015.4.10 = 해수부 기술검토팀 “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” 발표
- 2015.4.22 = 정부, 세월호 인양결정 공식 발표
- 2015.5.14 = 해수부,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선체 인양 추진단 헌판식
- 2015.5.15 =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배상금 총 12억5천만원 첫 지급결정
- 2015.5.22 =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국제 입찰공고
- 2015.6.22 = 세월호 인양 입찰등록 마감, 7개 컨소시엄 참여
- 2015.7.15 = 해수부, 세월호 인양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상하이샬비지 컨소시엄 선정
- 2015.8.4 = 해수부, 세월호 인양업체로 상하이샬비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

■ 이희호 여사 방북 주요 일지

- 2014.10.28 = 이희호 여사,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 밝혀
- 2014.11.21 = 남북,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접촉 진행

- 2014.12.1 = 이희호 여사측, 건강 고려 방북연기 입장 북측 통보
- 2014.12.16 = 김대중평화센터·현대아산,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
- 2014.12.24 =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, 이희호 여사에 친서 전달
- 2015.4.중순 = 김대중평화센터, 5월 말 방북 위한 사전 접촉 제안…북측은 “지금은 북 잡힌 상황”이라며 유보적 태도
- 2015.6.18 = 김대중평화센터, 이희호 여사 평양 방문 협의 재차 제안
- 2015.6.25 = 북측, 개성에서 실무접촉 갖자고 화답
- 2015.6.30 = 남북,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접촉
- 2015.7.6 = 남북, 추가 실무접촉 거쳐 8월 5~8일 방북 일정 확정
- 2015.8.5 = 이 여사, 이스타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 도착, 평양산원·옥류아동병원 방문
- 2015.8.6 = 이 여사, 평양 소재 육아원·애육원·양로원 방문
- 2015.8.7 = 이 여사, 묘향산 국제친선박람회관·보현사 방문
- 2015.8.8 = 이 여사, 이스타항공 전세기편으로 정오계 김포공항 도착

■ ‘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’ 주요 일지

- 1998.10.17 = 오전 5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(현 중부내륙고속도로)에서 정양이 23t 트럭에 치여 사망. 당시 18세. 오후 1시 사고현장 인근서 정양의 속옷 발견.
- 1998.12.21 = 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 종결. 트럭운전자 최모씨 혐의 없음 처분.
- 1999.3 = 경찰 국과수에 속옷 감정 의뢰. 속옷에서 정액 검출했지만 DNA는 발견하지 못해 신원 확인은 실패.
- 2000.9 = 유족들 담당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, 각하 처분.
- 2001 = 유족들 불기소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. 기각 결정.
- 2007 = 유족들 강간살인 혐의로 트럭 운전자 고소, 혐의 없음 처분.
- 2010 =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일명 DNA법) 시행.
- 2011.10 = DNA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에게서 DNA 채취.
- 2013.4.3 = 유족들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 제출
- 2013.5.31 = 유족들 대구지검에 고소장 제출. 강간살인범은 성명불상.
- 2013.6.5 = 국과수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 확인. 검찰 재수사 착수.
- 2013.8 = 대구지검 K씨 체포.
- 2013.9 = 대구지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 구속기소.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공범 2명은 기소 중지.

- 2014.5 = 대구지법, K씨 무죄 선고, 증거 불충분 이유.
- 2014.6 = 검찰 항소 제기.
- 2015.3 = 스리랑카인 '핵심 증인' 사건 내용 증언
- 2015.5 = 대구지법,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, 핵심 증인 진술 반영.
- 2015.8.11 = 대구고법 무죄 선고, 증인 진술 신뢰성 없다고 결론.

■ 역대 주요 특별사면·복권 일지

- 1993.2~1998.2. = 김영삼 정부 9차례 특별사면
- 1998.2~2003.2. = 김대중 정부 8차례 특별사면
- 2003.4.30 = 북한공작원 '간수' 정수일, 문규현 신부,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400여 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·복권
- 2003.8.15 =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관련 범죄 사범, 교통규칙 위반사범,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 명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
- 2004.5.26 =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,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,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·복권
- 2005.5.15 =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7명 석탄일 특별사면
- 2005.8.15 = 열린우리당 정대철·이상수 전 의원, 한나라당 김영일·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 명 광복절 특별사면
- 2006.8.15 = 안희정,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
- 2007.2.12 =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,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,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,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,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·복권
- 2008.1.1 =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, 한화갑 전 의원, 임동원·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·감형·복권(이상 노무현 정부 8차례)
- 2008.6.4 =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·감형,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 특별감면
- 2008.8.15 =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·최태원 SK그룹 회장·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 명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
- 2009.8.15 =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천770명 광복절 특별사면·감형·복권
- 2009.12.29 =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근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'원포인트' 특별사면·복권
- 2010.8.15 =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·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·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천493명 광복절 특별사면·감형·복권
- 2012.1.10 = 생계형 민생사범·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·감형·복권

- 2013.1.29 =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,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, 박희태 전 국회의장,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, 용산참사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·감형·복권 발표, 1월 31일자 시행(이상 이명박 정부 7차례)
- 2014.1.28 = 서민 생계형 형사범·불우수형자 5천925명 특별사면
- 2015.8.13 = 최태원 SK그룹 회장,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,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6천527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발표, 모범 수형자 588명 가석방,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,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 보호관찰 임시해제, 운전 면허 행정제재자 등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 특별감면 조치, 8월 14일자 시행(이상 박근혜 정부 2차례)

■ 북한군 대남 도발사건 관련 주요 일지

- 2010.1.27~29 = 서해 항행금지구역 선포 후 북방한계선(NLL) 해상 포사격 실시
- 2010.3.26 =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
- 2010.5.24 = 심리전 수단 설치시 직접 조준격파사격 위협
- 2010.6.12 = "심리전 재개는 선전포고" 서울 불바다 위협
- 2010.8.8 = '55 대승호' 나포
- 2010.8.9 = 서해상 NLL 남쪽으로 포사격 실시, 아군 대응사격
- 2010.9.6 = 탈북자 위장 보수단체 간부 독침테러 시도 간첩 검거
- 2010.10.29 = 北, 중동부전선 GP에 총격(오발로 결론)
- 2010.11.12 = 미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
- 2010.11.23 = 연평도 포격 도발
- 2011.3.4. = GPS 전파 교란(~3.14일)
- 2011.4.12 = 남측 농협 전산망 해킹
- 2011.8.10 = NLL 인근 2차례 해안포 사격
- 2011.11.24 = 최고사령부, 청와대 불바다 위협
- 2012.1.11 =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
- 2012.4.13 = 장거리로켓 '광명성 3호' 발사, 궤도진입 실패
- 2012.9.12~22 = 북한어선, 여섯 차례 NLL 월선
- 2012.12.12 = 장거리로켓 '은하' 발사
- 2013.5.18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6발 발사
- 2014.2.21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
- 2014.2.24 = 키리졸브/독수리 훈련 시작에 맞춰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
- 2014.2.27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
- 2014.3.3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
- 2014.3.4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7발 발사
- 2014.3.16 = 동해로 프로그 로켓 25발 발사
- 2014.3.22 = 동해로 프로그 로켓 30발 발사
- 2014.3.23 = 동해로 프로그 로켓 16발 발사
- 2014.3.26 = 동해로 노동 계열 미사일 2발 발사

- 2014.3.31 = 서해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및 사격, 아군 대응사격
- 2014.4.6 =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
- 2014.5.20 = 경비정 · 단속정 서해 NLL 침범
- 2014.5.22 = 서해상 우리 함정에 포격 도발
- 2014.6.26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3발 발사
- 2014.6.29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
- 2014.7.2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2발 발사
- 2014.7.9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
- 2014.7.13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
- 2014.7.14 = 동해로 방사포 · 해안포 150여 발 발사
- 2014.7.26 =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1발 발사
- 2014.7.30 =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
- 2014.8.14 =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
- 2014.9.1 =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
- 2014.9.6 =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
- 2014.10.7 = 경비정 1척 NLL 침범, 대응사격 도발
- 2014.10.10 = 연천지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사격 도발
- 2014.10.18 = 철원 비무장지대(DMZ)에서 군사분계선(DML) 접근
- 2014.10.19 = 파주 DMZ에서 DML 접근, 대응사격 도발
- 2014.11.10 = 파주 DMZ에서 DML 접근
- 2015.2.8 = 원산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
- 2015.3.2 = 키리졸브 연습 시작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동해 발사
- 2015.3.12 = 키리졸브 연습 종료 직전 지대공 미사일 7발 동해 발사
- 2015.4.3~4 = 서해 해안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 발사
- 2015.5.9 =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 주장 동해상으로 KN-01 미사일 3발 발사
- 2015.5.13 = 사전 예고후 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 사격훈련
- 2015.6.14 = KN-01 단거리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
- 2015.7.22 =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대 건설 마무리 정황 포착
- 2015.8.4 = 서부전선 보병 1사단 DMZ 구역에 목함지뢰 매설...아군 2명 중상
- 2015.8.20 = 북한군,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화기 발사, 아군 대응사격

■ 국내 선박 주요 침몰사고 일지

- 1953.1.9 = 부산 다대포앞 해상 창경호 침몰, 330명 사망 32명 실종.
- 1963.1.18 = 전남 영암 가지도 여객선 연호 침몰, 138명 사망 1명 구조.
- 1967.1.14 = 남해 가덕도 앞바다 정기여객선 한일호 침몰, 94명 사망 12명 구조.
- 1970.12.15 = 전남 여수시 소리도 해상 정기여객선 남영호 침몰, 323명 사망.

- 1974.2.22 = 경남 충무 해안 해군 YL선 전복, 157명 사망.
- 1980.10.31 = 울릉도 근해 제5봉종호 조업중 침몰, 35명 실종.
- 1985.3.15 = 제주도 근해 어선 세진호 전복, 26명 사망.
- 1987.3.3 = 제주 남쪽 동중국해상 어선 영지호 실종, 35명 실종.
- 1987.6.17 = 경남 거제군 다포리 앞바다 유람선 극동호 발화 침몰, 25명 사망 10명 실종.
- 1993.10.10 =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서해훼리호 침몰, 292명 사망.
- 2007.5.12 = 중국 다롄항 근해 제주선적 골든로즈호 침몰, 6명 사망 10명 실종.
- 2007.7.12 = 오만 근해 한국선박 오키드선호 침몰, 13명 실종.
- 2007.12.25 = 전남 여수해상 화학약품운반선 침몰, 14명 실종.
- 2009.3.10 = 일본 도쿄만 인근 제주선적 화물선 침몰, 16명 실종.
- 2009.12.20 = 부산 영도동쪽 해상 어선침몰, 5명 사망 20명 구조.
- 2010.3.26 = 서해 백령도 인근 해군초계함 천안함 침몰, 46명 사망 58명 구조.
- 2010.4.2 = 서해 대청도 근해 천안함 수색작업 저인망어선 침몰, 2명 사망 7명 실종.
- 2010.11.8 = 인천시 옹진군 근해 저인망어선 침몰, 2명 사망 7명 실종.
- 2013.10.15 = 경북 포항 앞바다 파나마화물선 침몰, 9명 사망 2명 실종.
- 2014.4.4 = 전남 여수 공해상 몽골선적 화물선 침몰, 북한선원 2명 사망 11명 실종.
- 2014.4.16 =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, 295명 사망 9명 실종.
- 2014.12.1 = 러시아 서베링해 501 오룡호 침몰, 27명 사망 26명 실종 7명 구조.
- 2015.9.6 = 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

■ 신경숙 소설가 표절 논란 이후 주요 사건 일지

- 2015.6.16 = 소설가 이응준씨,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고문 통해 소설가 신경숙씨가 단편 '전설'에서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(三島由紀夫 · 1925~1970)의 단편 '우국'을 표절했다고 주장.
- 6.17 = 신경숙, 출판사 창비 통해 "(해당 작가는) 오래전 '금각사'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"라며 표절 부인, 창비 문학출판부는 의혹 제기된 부분이 "일상적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"라며 가세.
- 6.18 = 창비, "(표절 의혹이 제기된) 일부 문장들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"한다는 강일우 대표이사 이름 사과문 발표.
- 6.18 =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, 신경숙 소설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.

- 6.23 = 신경숙,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“우국’의 문장과 ‘전설’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,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”면서도 “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‘우국’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”고 발언.
- 6.23 = 창비, ‘전설’ 실린 단행본 ‘감자 먹는 사람들’ 출고 정지.
- 6.23 = 한국작가회의· 문화연대 공동 주최 ‘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’ 토론회 진행. 창비·문학동네 불참.
- 6.25 = 출판사 문학동네, ‘문학 권력’ 비판한 권성우·김명인·오길영·이명원·조영일 평론가와 문학동네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지상(紙上) 좌담 공개 제안. 초대 평론가 거부로 무산.
- 7.15 = 문화연대·인문학협동조합, ‘신경숙 표절 사태와 한국문학의 미래’ 주제 2차 토론회. 창비·문학동네 불참.
- 8.24 = 창비 계간 문예지 ‘창작과 비평’ 가을호 출간. 백영서 주간 ‘신경숙의 해당 작품에서 표절 논란을 자초하기에 충분한 문자적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합의했다’고 발언.
- 8.27 = 백낙청 ‘창작과비평’ 편집인, 페이스북에 “문제된 대목이 표절 혐의를 받을 만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의도적인 베껴쓰기, 곧 작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”고 발언.
- 8.31 = 백낙청, “(문제의 문장이) 일부러 베껴쓰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보는 문학관, 창작관에는 원론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다”고 발언.
- 9.1 = 문학동네 관계자, 10월 주주총회에서 강태형 대표와 1기 편집위원 퇴진할 것이라고 밝힘.
- 9.1 = 문학동네 계간 문예지 ‘문학동네’ 가을호 출간. 권희철 편집위원은 서문에서 “전설은 ‘우국’의 표절”이라며 “한 번 제기된 문제를 소홀히 넘긴 것에 대해서 나를 비롯한 어떤 평론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”고 사과.
- 2005. 11. 5~10 = 제12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5. 11. 24~25 = 제2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5. 12. 8~9 =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6. 2. 27~28 =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6. 3. 20~25 = 제13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6. 6. 19~30 = 제14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7. 3. 27~29 =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7. 5. 9~14 =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7. 8. 13~14 =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7. 10. 17~22 =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
- 2007. 11. 14~15 =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9. 9. 26 ~ 10. 1 = 제17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10. 10. 30 ~ 11.5 = 제18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14. 2. 20 ~ 2. 25 = 제19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15. 1. 12 = 박근혜 대통령, 신년기자회견서 “北, 대화·이산가족 상봉 응해야” 발언
- 2015. 1. 23 =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, “5·24조치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 가능”
- 2015. 3. 1 = 박근혜 대통령 3·1절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, 상봉 정례화, 서신교환 등 협의 촉구
- 2015. 3. 3 = 북 조선중앙통신, “북핵에 시비 걸었다”… 박근혜 대통령 3·1절 기념사 맹비난
- 2015. 5. 19 = 박근혜 대통령,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촉구
- 2015. 5. 21 = 북한 적십자 “길부터 터라”…박근혜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발언 비난
- 2015. 8. 4 = 북한 비무장지대 묵함지뢰 도발 사건 발생
- 2015. 8. 5 = 南, 이산가족 상봉·금강산 관광 등 논의 고위급 회담 제안…北, 관련 서한 수령 거부
- 2015. 8. 15 = 박근혜 대통령,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 제안
- 2015. 8. 20 = 경기도 연천서 北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 발생
- 2015. 8. 22 ~ 8. 25 = 판문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, 상봉 정례화 추진 등 합의
- 2015. 8. 28 = 통일부, 적십자 실무접촉 9월 7일 판문점 개최 제안
- 2015. 8. 29 = 북, 적십자 실무접촉 판문점 개최 제안에 동의
- 2015. 9. 7 = 남북,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
- 2015. 9. 8 = 10월20~26일 금강산면화소에서 상봉행사하기로 합의

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주요 일지

- 1985. 9. 20~23 = 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·평양 교환 방문
- 2000. 8. 15~18 =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(서울·평양)
- 2000. 11. 30~12. 2 =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(서울·평양)
- 2001. 2. 26~28 =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(서울·평양)
- 2002. 4. 28~5. 3 = 제4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2. 9. 13~18 = 제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3. 2. 20~25 = 제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3. 6. 27~7. 2 = 제7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3. 9. 20~9. 25 = 제8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4. 3. 29~4. 3 = 제9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4. 7. 11~16 = 제10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- 2005. 8. 15 =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
- 2005. 8. 26~31 = 제11차 이산가족 대면상봉(금강산)

■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 주요 일지

- 2014.10.21 = 경남도 ‘무상급식 지원예산’ 감사 방침 발표
- 2014.10.30 = 경남도,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 도교육청 통보
= 경남교육청, 경남도 대신 감사원에 ‘무상급식 감사’ 요청

- 2014.11.3 = 홍준표 지사,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
- 2014.11.10 = 경남교육청, 현재에 '학교급식 감사' 권한쟁의 심판 청구
- 2014.11.10 = 경남도 '무상급식 보조금' 제외 2015년 예산 편성
- 2014.11.11 = 경남 시장·군수 정책회의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 결의
- 2014.11.24 = 시민단체 중심 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 창립
- 2015. 2.24 = 경남교육청, 급식비리 자체 감사 124명 징계
- 2015.4.1 = 경남 일선 학교 무상급식 유상 전환
- 2015.7.23 =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출범
- 2015.9.1 = 경남도·새누리당 경남도당 '급식 감사 조례 통과시 2016년 급식예산 편성' 합의
- 2015.9.7 =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시작
- 2015.9.8 = 박종훈 경남교육감 '급식예산 감사 수용' 기자회견

■ 대우조선 사태 관련 주요 일지

- 2015. 4. 6 = 대주주 산업은행,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후보 추천
- 2015. 5.29 =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취임
- 2015. 6.25 = 정성립 사장, 기간간담회서 해양플랜트 손실분 2분기 실적에 반영 시사
- 2015. 7.15 = 산업은행·금융당국 등, 대우조선 2분기 3조원대 적자 가능성 인정
- 2015. 7.21 = 산업은행, 대우조선 실사 착수
- 2015. 7.27 = 산업은행, 대우조선 본사와 옥포조선소에 경영관리단 파견
- 2015. 7.29 = 대우조선, 2분기 잠정실적 공시로 3조318억원 적자 발표
- 2015. 8.11 = 대우조선, 임원 수 30% 감축·비핵심 자회사 정리 등 자구계획안 발표
- 2015. 8.17 = 고재호 전 사장 등 대우조선 전현직 임원·고문 13명 실적 부진 도의적 책임 지고 사퇴
- 2015. 9.21 = 국회 정부위 산업은행 국정감사서 분식회계 가능성 등 집중 추궁
- 2015. 9.24 = 대우조선 노사 임금협상 타결, 기본급 동결, 격려금 지급 등 합의
- 2015. 9.30 = 대우조선 소액주주 119명, 대우조선·고재호 전 사장·안전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
- 2015.10. 4 = 검찰, 대우조선 전 경영진 업무상 배임 의혹 수사착수
- 2015.10. 7 =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, 국회 국정감사서 추가 부실 가능성 인정
- 2015.10.19 = 감사원, 산업은행 본감사 착수
- 2015.10.22 = 정부·금융당국·채권단,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 전면 보류, 회사 자구계획·노조 동의 후 정상화 지원키로 결정

- 2015.10.23 = 산업은행 정용석 구조조정본부장,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 노조와 면담, 임금 동결·쟁의행위 자제 요구, 동의 여부 데드라인으로 26일 밤 12시 제시
- 2015.10.26 = 대우조선 노조, 대의원총회·집행부회의 거쳐 채권단 요구 수용 결정
- 2015.10.27 = 대우조선 노사, 자구계획 및 노조 동의서 채권단에 제출
- 2015.10.29 = 산은, 4조2천억원 규모 지원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발표

■ <위안부 타결>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주요 일지

- 1991.8.14 = 한국인 피해자 김학순씨,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
- 1991.12.8 = 김학순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(이후 2004년 日최고재판소서 원고 패소 확정)
- 1992.1.13 = 日정부, 가토 관방장관 담화 발표...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
- 1992.1.17 =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...한일 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
- 1992.7.6 = 일본 정부 1차 위안부 실태 조사결과 발표,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"위안소의 설치나 운영·감독 등에 정부 관여" 인정
- 1992.7.31 = 정부, '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' 중간보고서 발표
- 1993.3.13 = 김영삼 대통령, 정부 차원에서의 물질적 보상 불(不)요구 방침 천명,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
- 1993.8.4 = 일본 정부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'고노 관방장관 담화' 발표
- 1994.=94년도 판 고교일본사 교과서에 '위안부' 기술
- 1994.8.31 = 무라야마 총리, 위안부 사죄 담화
- 1995.7.19 = 일본 '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' 발족, 한국 정대협 등 43개 단체, 기금 발족 반대 성명
- 1996.4.=유엔 인권위원회 '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' 수용 결의(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)
- 1997.1.11 = 日기금,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...韓정부, 피해자 요구 외면한 일시금 지급에 유감 표명
- 1997.1.30 = 일본 '새역모' 설립 총회, 위안부 기술 등 삭제 요구
- 1999.7.30 = 국내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로 日기금측의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
- 2000.4.= 일본 민주당 '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'(모토오카 법안) 제출(통과 안 됨)
- 2000.12.= 도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, 히로히토 일왕과 일본 정부에 유죄 판결
- 2001.4.3 = '새역모' 교과서,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
- 2002.5.1 = 日기금측,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, 한국 내 활동 종료
- 2005.8.26 = 한일 수교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

- 2006.= 2006년도 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'위안부' 기술 사라짐
- 2007.3.= 아시아여성평화기금 해산
- 2007.7.30 = 미국 하원 본회의,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하는 결의 채택
- 2011.8.30 = 韓현재, "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위헌" 결정
- 2011.9.= 韓외교부,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약의 요청
- 2011.12.18 = 이명박 대통령,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
- 2012.12.27 = 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 관방장관 '고노담화 수정' 언급
- 2013.1.6 = 미 정부 고위 관계자 "고노담화 수정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"고 일본 정부에 통고
- 2013.1.29 = 미 뉴욕주 상원, 위안부 결의 채택
- 2013.2.7 = 아베 총리, 국회서 "사람 납치 같은 강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"고 발언
- 2013.7.30 =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'위안부 소녀상' 제막
- 2014.1.15 = 미국 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 표결 통과(16일 상원 통과,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)
- 2014.2.28 = 스가 관방장관,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고 답변
- 2014.3.1 = 박근혜 대통령, 3·1절 기념사에서 "이제 선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하여야 한다.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"이라고 언급
- 2014.3.5 = 윤병세 외교부 장관,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이 "반인도적·반인륜적 처사"라고 비판
- 2014.3.14 =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일본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"아베 내각에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"고 발언
- 2014.4.16 =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·이하라 준이치(伊原純一)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,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 국장급 첫 협의
- 2014.4.25 =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"매우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"고 발언
- 2014.5.15 = 이상덕 국장·이하라 국장, 일본 외무성에서 위안부 문제 국장급 2차 협의
- 2014.6.20 = 일본 정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...韓정부, "사실관계 호도" 비판하며 깊은 유감 표명
- 2014.7.23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3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서울)
- 2014.7.24 = 유엔 시민적·정치적 권리위원회,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.
- 2014.8.6 =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,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촉구
- 2014.9.19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도쿄)
- 2014.11.27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5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서울)
- 2015.1.19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6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도쿄)
- 2015.3.16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7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서울)
- 2015.6.11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8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도쿄)
- 2015.8.14 = 日정부, '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' 발표
- 2015.9.18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9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도쿄)
- 2015.11.2 =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,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의견 일치
- 2015.11.11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서울)
- 2015.12.15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도쿄)
- 2015.12.27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(서울)
- 2015.12.28 =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타결...日정부 책임 인정,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 엔 출연키로

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주요 일지

- 2006.11 = 금호아시아나그룹, 대우건설[047040] 인수
- 2008.3 = 대한통운 인수
- 2009.6 = 대우건설 재매각 발표
- 2009.7 = 박삼구-찬구 형제 동반 퇴진 발표
- 2009.11 = 금호생명 매각 결정
- 2009.12 = 유동성 위기로 금호산업·금호타이어 [073240] 워크아웃, 금호석유화학·아시아나항공 [020560] 자율협약 추진 발표
- 2010.1 = 주요 계열사 워크아웃·자율협약 돌입
- 2010.2 =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추진
- 2010.3 = 금호렌터카 매각
- 2010.10 = 박삼구, 그룹 회장으로 복귀
- 2011.7 = 대한통운 CJ그룹에 재매각
- 2012.6 = 금호고속 매각
- 2013.11 = 박삼구, 금호산업[002990] 대표이사 복귀
- 2014.10 = 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
- 2014.12 = 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업,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
- 2015.1 = 금호산업 채권단, 지분 매각 공고
- 2015.4 = 호반건설, 금호산업 분입찰에 6천7억원 단독 응찰, 채권단 거부로 유찰

- 2015.5 = 금호아시아나그룹, 금호고속 4천50억원에 재인수, 금호산업 채권단, 박삼구 회장과 우선 협상 결정
- 2015.7.23 = 금호산업 채권단, 경영권 지분 인수가 1조 218억원 제시
- 2015.8.21 = 박삼구, 매입 희망가 6천503억원 제시
- 2015.9.9 = 박삼구, 매입 희망가 7천47억원 제시
- 2015.9.11 = 채권단, 매각가 7천228억원 결정
- 2015.9.18 = 채권단, 매각가 7천228억원 결의
- 2015.9.23 = 채권단, 7천228억원 공식 통보
- 2015.9.24 = 박삼구-채권단 주식매매계약 체결
- 2015.10.6 = 박삼구, 새로운 지주회사 금호기업 설립
- 2015.11.6 = 박삼구, 인수대금 조달계획서 채권단에 제출
- 2015.12.29 = 박삼구,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인수대금 완납

■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주요 일지

- 2004. 6 = 남북 합의로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방송용 확성기 모두 철거
- 2010. 3 = 북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확성기 방송 시설 설치했다가 방송 유보
- 2015. 8. 10 = 북한군의 비무장지대(DMZ) 목함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 11년 만에 재개
- 2015. 8. 13 =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 결정
- 2015. 8. 14 =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으로 확대
- 2015. 8. 15 =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, 공개경고장 통해 확성기 무차별 타격 위협
- 2015. 8. 17 = 북한군도 일부 최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시작
- 2015. 8. 19 = 북한군, 남측 확성기 타격 훈련 강화
- 2015. 8. 20 = 북한군, 전통문 보내 48시간 내 확성기 철거 요구 및 남쪽으로 2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
- 2015. 8. 22 =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(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)
- 2015. 8. 25 = 8·25 남북 합의에 따라 방송 15일 만에 중단
- 2016. 1. 6 = 북한, 4차 핵실험 진행
- 2016. 1. 8 =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(예정)

■ 제4 이동통신 추진 주요일지

◇ 1차

- 2010. 6.14 = 방통위, 한국모바일인터넷(이하 KMI)의 제4 이동통신 서비스 허가 신청 접수.
- 2010. 7. 29 = 방통위, 2.5GHz대역의 주파수 4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.
- 2010. 11.2 = 방통위, KMI에 부적격 판정.

◇ 2차

- 2010. 11.17 = KMI, 제4이통사 허가 재신청.
- 2010. 12.13 = 방통위,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.
- 2011. 2.24 = 방통위, KMI 두 번째 불승인 결정.

◇ 3차

- 2011. 7.4 = 중소기업중앙회, 제4이동통신사 진출 검토 발표.
- 2011. 8.26 = KMI, 제4이통사 3수 도전...사업 허가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.
- 2011. 11.초 = 현대그룹, 제4이통사 희망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(이하 IST) 참여.
- 2011. 11.18 = IST, 방통위에 제4이통사 설립 허가 신청.
- 2011. 12.14 = 현대그룹, IST 투자 철회 입장 공식 확인.
- 2011. 12.16 = 방통위, KMI·IST 모두 불승인.

◇ 4차

- 2011. 10.12 = KMI, 가계통신비 30% 절감 목표 내걸고 4번째 제4이통사 도전.
- 2011. 12.24 = IST, 두번째 제4이통사 허가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.
- 2013. 2.1 = 방통위, KMI·IST 또다시 불승인.

◇ 5차

- 2013. 11.14 = KMI,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섯 번째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신청.
- 2014. 2.24 = IST, 재무적 문제로 제4이통사 도전 포기 공식 확인.
- 2014. 2.27 = KMI, 주파수 할당 신청 포기...제4이통사 도전 철회.

◇ 6차

- 2014. 3.19 = KMI, 제4이통사 6번째 허가 신청서 제출.
- 2014. 6.2 = KMI, 2.5GHz 대역 주파수 할당 단독 신청.
- 2014. 6.25 = 미래부, KMI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.
- 2014. 7.24 = 미래부, KMI 제4이통사 진입 불허 결정.

◇ 7차

- 2015. 10.30 = 퀴텀모바일·세종모바일·K모바일, 제4이통사 허가 신청서 제출.
- 2015. 11.30 = 미래부, 퀴텀모바일·세종모바일·K모바일에 적격 심사 통과 판정.
- 2016. 1.29 = 미래부, 제4이통 사업자 허가심사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기준 미달 판정

■ 주요 민간 총기사건 일지

- 2002.2.13 = 전남도 보성군 벌교읍 야산에서 정모(51)씨가 전처의 남동생인 박모(37)씨와 박씨의 처 배모(35)씨, 딸(11) 등 일가족에게 염총을 난사해 박씨가 숨지고 배씨와 딸이 중상을 입음. 정씨는 인근의 성모객 등에게 검거

- 됨. (1명 사망 · 2명 부상)
- 2003.2.1 = 부산시 북구 덕천2동 가정집에서 김모(55)씨가 처남 이모(46)씨와 이씨의 부인 전모(41)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. 이씨의 어머니 김모(78)씨와 동생 이모(43)씨, 이웃주민 등 4명에게도 총상을 입힘. 김씨는 엽총으로 자살을 기도. (2명 사망 · 5명 부상)
- 2005.2.9 =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가정집에서 이모(66)씨가 셋째 동생의 아내(45)와 딸(13), 둘째 동생의 막내딸(26)에게 엽총을 쏘 살해. 둘째 동생 큰딸(31), 며느리 박모(34)씨, 친척 이모(45)씨 등에게도 엽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힘. 이씨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인근 야산에서 엽총으로 자살. (4명 사망 · 3명 부상)
- 2008.1.27 =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가정집에서 송모(64)씨가 제수(47)와 조카딸(14)을 엽총으로 쏘 살해. 송씨는 엽총으로 자살기도. (2명 사망 · 1명 부상)
- 2011.2.21 =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장에서 손모(64)씨가 옛 동거녀 신모(41 · 여)와 정모(54)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. 이모(71)씨에게는 중상을 입힘. 손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됨. (2명 사망 · 1명 부상)
- 2012.2.25 = 충남도 서산시 수석동 자동차시트공장에서 성모(31)씨가 옛 직장동료 최모(38)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하고 임모(30) · 문모(56)씨에게 중상을 입힘. 성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서해대교 인근에서 검거됨. (1명 사망 · 2명 부상)
- 2012.7.20 =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공터에서 이모(58)씨가 동생 친구인 안모(54)씨를 엽총으로 쏘 살해. 이씨는 범행 직후 자수(1명 사망)
- 2015.2.25 =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편의점 주변에서 강모(50)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오빠 김모(50)씨와 김씨 아버지(74),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는 송모(52)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남. 강씨는 사건현장에서 4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엽총으로 자살. (4명 사망)
- 2015.2.27 =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가정집에서 전모(75)씨가 형(86)과 형수(84),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.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 내려 탈출하다 부상. 전씨는 범행 뒤 현장에서 엽총으로 자살. (4명 사망 · 1명 부상)

■ 민 · 관 · 군 헬리콥터 주요 사고 일시

- 1992.2.14 = 경북 선산군에서 육군항공대 소속 UH-1H 헬기 추락해 7명 사망.
- 1992.8.13 =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서 한국항공 소속 12인승 관광용 헬기 추락해 1명 사망, 11명 중상.
- 1992.9.14 = 강원 춘천군 남면 산악지대에서 육군 500MD 헬기 2대 추락해 4명 사망.
- 1993.4.30 =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속리산 문장대 부근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500D 헬기 추락해 3명 사망.
- 1993.6.14 = 서울 한강서 선경건설소속 S76B 헬기가 영화촬영 중 추락해 7명 사망.
- 1993.8.13 = 경북 성주군서 해군소속 대잠초계기 링스 MK99 추락해 10명 사망, 1명 부상.
- 1994.3.3 =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야산에 공군 제15전투비행단 소속 UH-60 블랙호크기 추락해 6명 전원 사망.
- 1995.7.28 = 충북 음성군 산성면에서 육군 항공대 소속 UH1H기 추락해 4명 사망, 2명 중상.
- 1996.8.9 =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경남도소방본부 소속 BK 117B-1 백로 1호 헬기가 조난 등산객을 태우고 가던 중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객 7명 전원 사망.
- 2001.5.17 = 경북 안동시 계명산에서 산림항공관리소 양산지소 소속 러시아제 까모프(KA-32T) 소방헬기가 산불진화 도중 추락해 조종사 등 3명 사망.
- 2003.1.18 =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대구시소방본부 소속 PZL-W3A(SOKOL) 달구벌 2호기 소방헬기가 자동비행장치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2명 사망.
- 2003.8.14 = 경북 영천시 화산면 용평리에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UH-1H 헬기 추락해 조종사 등 7명 사망.
- 2006.7.27 = 충남 부여에서 산림항공본부 강릉관리소 소속 러시아제 ANSAT305 헬기가 밤나무 방제작업 도중 추락해, 조종사 사망.
- 2007.8.20 = 충남 공주에서 산림항공본부 진천관리소 소속 벨206-L3 헬기가 밤나무 방제작업을 위해 이동 중 추락해 조종사 등 3명 사망.
- 2007.11.5 = 강원도 인제군 현리 육군 항공단 활주에서 UH-60 헬기 2대 공중 추돌해 조종사 1명 사망, 21명 부상.
- 2008.2.20 =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204항공대대 소속 UH-1H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7명 사망.
- 2009.11.23 = 전남 영암에서 산림항공본부 영암관리소 소속 러시아제 KA-32T 헬기가 비행 교육 중 추락해 3명 사망.
- 2010.3.3 =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비닐하우스단지에서 육군 109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추락해 2명 사망.
- 2011.3.19 =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저수지에서 충남 소방본부 소속 소콜(sokol) 헬기가 산불진화에 앞서 저수지에서 담수 작업하러 가던 중 추락해 정비사 1명 사망.
- 2011.4.4 = 경기 연천에서 김스솔루션 소속 헬기가 지재운반도중 추락해 2명 사망.
- 2011.5.5 = 강원 강릉시 소금강 계곡 인근에서 산림청 소속 AS350-B2 헬기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에 추락해 조종사 등 2명 사망.
- 2012.7.21 = 대구 달성군에서 에스엔 항공 소속 헬기가 항공방제 작업 중 전선에 걸려 추락해 1명 사망.
- 2013.5.9 = 경북 안동시 임하댐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속 S-64E 헬기가 산불진화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해 조종사 2명 사망.
- 2013.11.16 =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기가 충돌해 조종사 2명 사망.
- 2014.7.17 =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도로에

세월호 참사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헬기 추락 해 소방대원 5명 사망.

- 2015.3.13 =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 사망, 1명 실종.
- 2016.2.15 =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인근 밭에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-1H 헬기가 점검 비행 중 추락해 3명 사망, 1명 부상.

■ ‘사드 한반도 배치’ 논의 관련 주요 일지

◇2014년

- 6.3 =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, 한국국방연구원(KIDA) 국방포럼 조찬 강연서 “사드, 한국 전개 요청했다”고 발언.
- 6.5 = 미국 국방부 “한국 정부, ‘사드’ 관련 정보 요청했다”

◇2015년

- 2.4 = 창완취안(常萬全) 중국 국방부장,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사드 우려 표명
- 3.9 = 국방부 “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 없다…독자 방어체계 구축”
- 3.11 = 청와대, 사드 관련 ‘3No’(요청·협약·결정) 입장 재확인
- 3.26 = 북한 외무성 담화 “사드는 선제공격용”
- 4.10 =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,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“사드 배치 논의 단계 아니다”
- 4.17 = 미국 태평양사령관, 상원 청문회서 “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 논의 중”
- 5.21 = 국방부 “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 협의할 것”
- 5.31 = 쑨젠궈(孫建國) 중국군 부총참모장, 한민군 장관과 양자회담서 사드 배치 우려 표명
- 10.30 = 미국 록히드 마틴 “한미 사드 배치 공식·비공식 논의 중”
- 10.31 = 미국 록히드 마틴 “양국 정부간 논의 알지 못해” 입장 반복

◇2016년

- 1.6 = 북한, 제4차 핵실험
- 1.13 = 박근혜 대통령,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“안보·국익 따라 사드 검토”
- 1.22 = 미국 전략문제연구소, 사드 한반도 배치 권고.
- 1.25 = 한민군 국방장관 “군사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 검토 필요”
- 1.31 = 미국 태평양사령관 “사드 배치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항”
- 2.7 = 한미,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
- 2.9 = 러, 한국대사 불러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우려 표명

- 2.11 = 왕이(王毅) 중국 외교부장, 독일 뮌헨 안보회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사드 배치 논의에 불만 표출
- 2.15 = 중국 외교부, 사드 한반도 배치 “결연한 반대”
- 2.17 = 중국 외교부,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
- 2.22 = 국방부 “공동실무단 구성·운영 협의 진행 중” 발표
- 2.23 = 한미,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돌연 연기
- 2.23 = 추귀홍(邱國洪) 주한중국대사,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예방서 “사드 배치 한중관계 파괴” 발언
- 2.24 =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,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“북한 비핵화시 사드 필요 없다” 발언.
- 2.29 = 미국 국무부 “사드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는 별개 문제”
- 3.2 = 류제이(劉結一) 유엔 주재 중국대사,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자리서 “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” 발언
- 3.4 =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

■ 北주민 주요 집단탈북 사건 일지

- 1987.1 = 김만철씨 가족 11명, 50급 청진호 이용 탈북
- 1996.12 = 김경호씨 일가족 17명, 해상으로 탈북
- 1997.1 = 北주민 2가족 8명, 탈북후 서해상 표류중 구조
- 1997.5 = 北주민 2가족 14명, 목조어선 이용 서해상 귀순
- 2001.6 = 장길수 등 탈북자 7명 UNHCR 베이징 사무소 통해 입국
- 2002.3 = 탈북자 25명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 통해 입국
- 2002.8 = 北주민 3가족 21명, 어선 이용 서해상 귀순
- 2003.1 = 탈북자 80여 명, 중국 산둥성 엔타이항에서 보트 2척에 나눠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려다 실패.
- 2003.4 = 北주민 일가족 3명, 선박 이동 동해상 귀순
- 2004.7 = 동남아 국가 체류 탈북자 468명 전세계편으로 입국
- 2004.9 = 탈북자 29명 베이징 일본인학교 진입
- 2004.9 = 탈북자 추정 45명 베이징 캐나다대사관 진입시도, 44명 진입성공
= 탈북자 9명 상하이 미국국제학교 진입시도 무산
- 2004.10 = 탈북자 20명 베이징총영사관 진입
= 탈북자 29명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진입
- 2006.3 = 北주민 5명, 2급 소형선 이용 동해상 귀순
- 2009.10 = 北주민 10명, 동해 경유 남하 귀순
- 2011.2 = 北주민 31명, 서해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…4명 귀순
- 2011.3 = 北주민 6명, 조선족 3명과 함께 중국 어선 타고 입국
- 2011.6 = 北주민 9명, 서해 우도 해상에서 남측 귀순
- 2016.4 =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후 입국